

“수화포교 우리가 종단 대표”

태고종 유일의 연흥사 수화봉사동아리 활약 “눈에 띄네”

11월 14일 경기도 부천시청 대강당. 무대위에 10여 보살들이 울라와 경쾌한 노래와 율동을 맞추고 있었다.

‘이세상의 부모마음 다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되라고 행복하라고 원더풀 11월 원더풀 11월 아빠의 청춘, 부라보 부라보 아빠의 인생’.

(사)경기농악인협회 부천시부 주최로 열린 ‘제 6회 부천수화경연대회’에 참가한 ‘연흥사 수화봉사동아리’ 회원들이 대중가요인 ‘아빠의 청춘’을 몸짓언어인 수화로 부르고 있다.

이날 이들은 이 대회에서 동상을 받았다. 이들의 수상은 처음이 아니다. 4회대회에서는 대상, 지난해 5회 대회에서는 은상을 차지할 정도로 연흥사 수화봉사동아리는 이제 부천 지역 유일의 불교 수화봉사동아리로서 실력과 명성이 자자하다.

결성 3년만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호응 받기까지는 연흥사 주지 법경 스님 외에 진공·진해 두 스님의 역할이 컸다.

특히 진공 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은 3년전 우연히 구청을 방문했다가 한 청각장애자가 의사소통이 안돼 민원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한 뒤 신도들을 설득해 동아리를 만들었다. 먼저 수화를 배운 진공 스님이 동아리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쳐 이제 20여 회원들은 청각 및 언어장애자들과 웬만한 의사소통 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태고종단내에서도 유일한 수화봉사동아리인



11월 14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 6회 부천수화경연대회에서 연흥사 스님들과 수화봉사 동아리 회원들이 ‘아빠의 청춘’을 수화로 부르고 있다.

‘연흥사 수화동아리’가 결성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봉사무소와 구청 등 관공서다. 하루전날 진공 스님에게 장애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스님이 자원봉사자 회원들에게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봉사가 이뤄졌다. 요즘은 봉사의 활동 영역을 넓혀 장애인들을 인근 병원까지 데리고가 의사가 진료할 때 설명해주는 통역 봉사도 병행한다.

이 동아리에 대한 소문이 부천 지역에 자자해 이웃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이들에게 연락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회원들은 수화 봉사를 통해 사회생활도 더 충실히 하게 되고 가족간의 사랑까지 돈독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법경 스님은 “수화동아리는 90% 이상이 개신교 등 타종교가 일찍부터 선점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불교 수화동아리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장애인포교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불교에서도 꾸준히 관심 갖다 보면 신도들의 결속력도 더 좋아지고 사찰과 종단 홍보도 꽤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다.

글·사진·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진각종 총인 도흔 정사

23일 총인원서 추대법회

도흔 정사가 진각종 제 10대 총인으로 공식 추대됐다.

진각종 원로회의 기구인 인의회(의장 해일 종인)는 11월 14일 대구교구구청 회의실에서 ‘13회 인의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도흔 정사(사진)를 제 10대 총인으로 추대했다.

도흔 정사는 지난 10월 19일 제 349회 정기 총의회서 제 10대 총인에 만장일치로 선출된바 있다.

총인 추대법회는 11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봉행된다. 김주일 기자



진각가족 진리나눔축제 연다

25일 진선여교 회당기념관서

진각종(총리원장 회정)이 가족과 이웃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생활공동체를 점검하는 한마당 축제를 펼친다.

진각종 창종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제 1회 진각가족 진리나눔 축제’를 11월 25일 진선여교중고등학교 내 회당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서울, 대전, 전라교구, 진각문화마당 등 4개 마당으로 구성된다. 원로스승 초청 특별법회인 밀교교리법회는 생활법문을 통해 교리체득의 기회와 수행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대구, 부산, 광주, 포항교구는 내년 상반기 중 위덕대에서 제 2회 진각가족 진리나눔 축제를 개최한다. 김주일 기자

미륵종 부산교구 현판식

초대 교구원장 임명장 수여



부산교구원장 혜경스님(왼쪽)이 총무원장 송정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있다.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부산교구 현판식과 초대 부산교구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11월 15일 부산 금강사에서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륵종 원로원장 연봉 스님과 총무원장 송정 스님 등 종단 간부 및 신도 100여명이 참석한 부산교구의 발전을 기원했다. 영민 서부경남 지사장



▶기고 - 미국 군중 관련 시설을 다녀와서

1300여 군중장교 중 불교법사는 없었다

육군본부 군중감실 주최로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11박 12일동안 본인을 비롯 법사 4명과 군목 등 군중장교 16명이 미국 군중 병과 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왔다.

미국의 군중 병과는 1775년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육군을 창설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은 군중장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장병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은 물론 작전시 지휘관에게 조언을 하는 참모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병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군중제도도 광복 이후 미군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 군법사는 월남 파병을 앞두고 1968년에 처음 조계종이 국방부에 파송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컬럼비아주에 위치한 군중학교는 12주간의 교육을 통해 전사를 대비한 실무 중심으로 군의 현실과 군중장교의 역할을 배운다고 했다.

야외 훈련장에는 실제 아라크 주둔 미군부대를 재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입관 때부터 다양한 재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군중학교라는 별도의 독립 교육기관은 없다.

특히 군중 장교가 자신의 종교를 알리고 신도회득을 제 1의 목표로 활동하는 우리와 달리, 장병들의 상담 및 선도, 영적, 종교적, 도덕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미 군중학교의 교육에 군중장교의 전문성과 군내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와 대조적이었다.

신도회득을 위한 황금어장으로 포교(선교)에 제 1의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군중 병과가 거울 삼아야 할 대목이다. 개인의 종교를 초월해, 오직 장병 개개인의 인성 함양과 행복 추구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미군에는 1300여명의 군중장교가 있다. 그중 개신교 군목이 80%, 천주교 신부가 10%, 무슬림·랍비등 기타 군중장교가 10%의 분포인데 아쉽게도 불교법사는 아직 없다. 사실 군중 법사는 우리



육군본부 군중감실은 매년 군중장교를 선발해 선진 군중병과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를 시찰한다. 사진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회사에서 찍은 사진. 왼쪽부터 김갑영, 미 육사 군목 다벨 E.롬센, 경연수, 이준석 군법사. 사진제공=김갑영

신도회득이 목표인 국내 군중장교와 달리

장병들의 영적·도덕적 지도자 역할 중시

나라가 세계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50만 미 육군 가운데 1558명의 아시아계 불자들이 있고, 법사 TO가 2석 적, 종교적, 도덕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미 군중학교의 교육에 군중장교의 전문성과 군내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와 대조적이었다.

신도회득을 위한 황금어장으로 포교(선교)에 제 1의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군중 병과가 거울 삼아야 할 대목이다. 개인의 종교를 초월해, 오직 장병 개개인의 인성 함양과 행복 추구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미군에는 1300여명의 군중장교가 있다. 그중 개신교 군목이 80%, 천주교 신부가 10%, 무슬림·랍비등 기타 군중장교가 10%의 분포인데 아쉽게도 불교법사는 아직 없다. 사실 군중 법사는 우리

분야의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가를 다

양하게 양성 해야 된다고 생각 되었다. 뉴욕과 LA에서는 교회, 성당, 사찰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다. 100만명의 교포가 살고 있는 LA와 20만명의 뉴욕에서 우리 한국불교 모습은 개신교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대만불교는 LA에 대해 사찰과 대학까지 세우고 그 위세가 대단했다. 행사 때마다 수 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한국 불교는 고작 1백~2백명 수준이라니 무척 안타까웠다.

종단차원에서도 해외 포교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LA나 뉴욕 같은데 한국 문화의 전진 기지로서 교포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형 사찰의 건립과 보다 실력있는 후배들이 미군에도 진출해 군 포교 영역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김갑영(5군단 호국 금강사 법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함포 허길명저 후한 석가모니불상(재로:銅) 문의:02-2004-8291

만인동참
ARS: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한국불교의 미래 군 불 교

봉 제38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 축

軍僧! 軍人! 未來! 한국불교의 미래 군불교!

여기 삼보에 귀의하고 전법의 길을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망망대해 황금어장, 무진법문을 통해 모든 군장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968년 최초 5명의 육군 군승 파송 이후 38년! 대한민국 육·해·공군 척박한 군포교 현장에서 오직 일념으로 진력해 온 전법의 선봉장! 136명! 오늘 그들이 마음을 모아 한국불교를 밝게 비출 원력과 신심으로 미래의 한국불교를 외칩니다.

초청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한국불교의 미래 군불교 발전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을 모시고 「제 38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0(’06)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군중교구본사 주지 황 일 면 합장

1부 제38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

- 총무원장 스님 법어
- 공유자 포상

2부 축하공연

- LMB심어즈, 연꽃소리, 박완(팝페라), 국방부 타악연주팀 등

- 일시 : 불기 2550(’06)년 11월 30일(목) 오후 6시
- 장소 : 하림각(종로구 부암동 소재)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군중교구

군불교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살립니다!

사부대중 모두의 마음을 모아 군불교 발전을 위한 발원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국군장병에게 부처님의 손길을 전하는 고귀한 불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계좌번호 : 제일은행 325-20-203673 (예금주 : 군중특별교구)
- 후원금은 동참하신 분들의 이름으로 군포교 일선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 축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문의·전화 : 군중교구 총무실 02)749-8646 팩스 02)796-0221 홈페이지 www.gunindra.com

